

2022-2023년 텔 라기스 발굴과 성서고고학적 의미

강후구(서울장신대)

1.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남서쪽 40여 킬로미터에 위치한 라기스(텔 에드-두웨이르)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남유다 왕국에서 중요한 도시이다. 구약성서에서 24번 언급된(수 10:3, 5, 23, 31, 32, 33, 34, 35; 12:11; 15:39; 왕하 14:19; 18:14, 17; 19:8; 대하 11:9; 25:27; 32:9; 느 11:30; 사 36:2; 37:8; 미 1:13; 렘 34:7) 라기스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뿐만 아니라 가나안 시대에서도 쉬펠라 지역의 주요 도시-국가였음이 알려졌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발굴을 포함하여 텔 라기스에서 행해진 여섯 차례의 발굴을 통하여¹ 다른 어떤 장소보다 고고학적으로 자세히 알려졌다.

1 제1차 발굴(스타키)-1932-1938년; 제2차 발굴(아하로니)- 1966, 1968년; 제3차 발굴(우시쉬킨): 1973-1994년; 제4차 발굴(가르핀켈, 하젤, 클링베일)- 2013-2017년; 제5차 발굴(간노르, 크라이머만)- 2015- 2016년; 제6차 발굴(스트라이트, 회프마이어)- 2017-현재. 제3차 발굴까지 행해진 텔 라기스 발굴 역사에 대해서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삭침공까지』(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2014), 580-592; D.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고고학과(요셉 가르핀켈)와 서울장신대학교 성서고고학연구소(강후구)가 공동 주관하에 시행된 제7차 텔 라기스 발굴은 지금까지 비교적 적게 알려진 르호보암 시대 때 세워진 다섯 번째 지층 즉 주전 10세기 말에 새롭게 시작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정착 시기에 집중하여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2-2023년에 실시된 제7차 텔 라기스 발굴 결과를 살펴보고 이것이 지닌 성서고고학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2. 제7차 텔 라기스 발굴(2022-2023년)

제4차 텔 라기스 발굴 시 북쪽 경사면에서 발견된 다섯 번째 지층의 성벽과 성벽에 접하여 건설된 가옥들은 이 지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주었다.² 그러나 이 발굴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며 발굴자들이 보고한 내용과 해석을 부인하고 달리 해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³ 또 한편으로 이와 동시에 북쪽에서 발견된 성벽으로

Ussishkin (e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Vol. 1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2004), 26-49 참조. 제4차 발굴에 대해서는 Y. Garfinkel et al. "The Canaanite and Judean Cities of Lachish, Israel: Preliminary Report of the Fourth Expedition, 2013-2017",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125.3 (2021), 419-459; 제5차 발굴에 대해서는 S. Ganor/I. Kreimermann, "An Eighth-Century b.c.e. Gate Shrine at Tel Lachish, Israel", *Bulletin of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81 (2019), 211-236;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제6차 발굴에 대해서는 L. Webster et al. "New Radiocarbon-Based Assessment Supports the Prominence of Tel Lachish During Late Bronze Age IB-IIA", *Radiocarbon* 61/6 (2019), 1711-1727; F. Höflmayer et al. "Early Alphabetic Writing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missing link' from Tel Lachish", *Antiquity* 95 (2021), 705-719.

2 강후구, "제4차 텔 라기스 발굴과 역대하 11장 5-12절", 「장신논단」 49/2 (2015), 13-33; idem., "제4차 텔 라기스 발굴 (2013-2017)의 성서고고학적 기여점과 앞으로의 과제", 「서울장신논단」 26 (2018), 69-85; Y. Garfinkel et al. 윗글, 419-459.

3 D. Ussishkin, "Lachish and its Fortifications: A Response to Yosef Garfinkel's Proposals",

인하여 다섯 번째 지층의 도시의 크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다섯 번째 지층은 도시였지만, 우물과 궁전을 포함한 텔 라기스 약 3분의 1 정도의 도시로 시작하였다가 7.5 헥타아르 크기의 온전한 도시로 성장한 것은 그 위의 네 번째 지층, 즉 주전 9세기에 와서야 가능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그림 1)의 붉은 점선. 아래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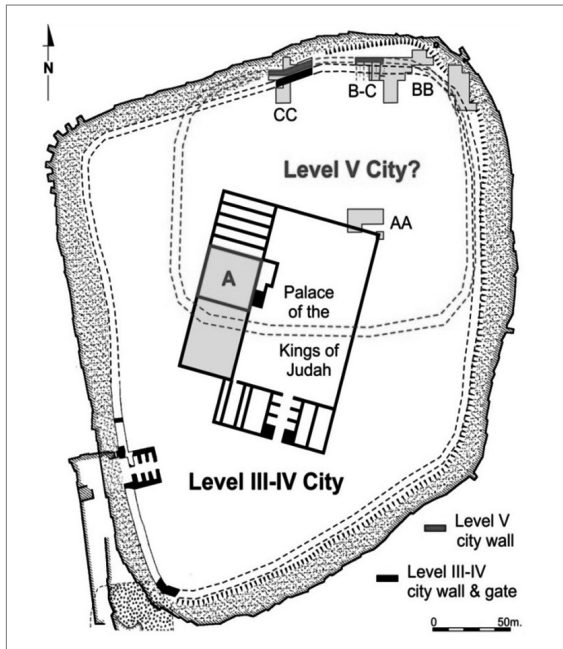


그림 1. 텔 라기스 다섯 번째 지층의 도시와 네 번째-세 번째 지층의 도시

New Studies in the Archaeology of Jerusalem and Its Region 13 (2019), 301-311; idem., “The City Walls of Lachish: Response to Yosef Garfinkel, Michael Hasel, Martin Klingbeil and Their Colleague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55.1 (2023), 91-110; I. Finkelstein, “Iron Age Chronology and Biblical History Rejoinders: The Late Bronze/Iron Age Transition, Tel ‘Eton and Lachish”,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52.2 (2021), 85-93. 이에 대한 응답으로 H.-G. Kang/S.-Y. Chang/Y. Garfinkel, “The Level V City Wall at Lachish”,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55.2 (2023), 135-145를 보라.

이와 같은 도전 가운데 중요성이 부각 된 다섯 번째 지층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발굴되었다.

1) Area BC

히브리대학교에 의하여 발굴된 BC 지역은 2015년부터 2017년도 까지 발견된 지층 5의 성벽과 성벽에 접하여 건설된 가옥들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코자 함이었다. CC 지역에서 발견된 성벽과 BC 지역에서 발견된 가옥들을 연결시켜 다섯 번째 지층의 도시의 모습을 드러냈다(그림 2). 발견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CC 지역에서 드러난 지층 5의 성벽과 BC 지역의 가옥들은 분명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BC 지역의 서쪽 부분에서는 성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일부 가옥들이 좀 더 확장되어 9개 이상의 가옥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섯 번째 지층의 도시는 북쪽 지역에 밀집된 거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옥들은 대부분 기둥을 지닌 4방 가옥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둥을 지닌 4방 가옥 구조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정착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발견은 텔 라기스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남유다 왕국에 속한 라기스의 가옥 형태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다.

셋째, <그림 2>~<그림 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쪽의 네 개의 개인 가옥이 끝나는 지점에서 벽이 하나 발견되고 이후 좁은 통로가 있으며 그 다음은 또 다른 가옥이 시작된다. 이는 건축시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한 모습이 텔 베이트 미르심에 발견된다. 이와 같은 건축은 분명 건축 시 권력가의 조정과 지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지층 5에서 드러난 가옥의 바닥 아래의 발굴은 지층 6, 즉 가



그림 2. 발굴된 BC 지역의 모습 (항공 사진)



그림 3. 건설된 가옥벽들 간의 좁은 통로(사진 중앙 우측)

나안인들의 마지막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나안인들의 토기를 포함한 파괴된 가나안 도시 위에 지층 5의 도시가 건설되었음을 알 수

www.kci.go.kr

있다.

마지막으로, CC 지역에서 성벽은 온전하게 남아 있는 반면 서쪽으로 갈수록 성벽의 보존 상태는 매우 약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떤 가옥(예를 들어 서쪽에서 두 번째 가옥)과 인접한 성벽은 거의 보존되지 않았다. 이는 북쪽 비탈 지역에 위치한 성벽의 특성상 손실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2) Area DD

텔 라기스 남쪽 경사면 중앙 지역에 위치한 DD 지역(그림 4 참조)은 아래에 설명할 EE 지역과 함께 한국인들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이 지역은 지표조사에 의하여 지층 5의 성벽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 곳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2023년도까지 진행되었다. 이 지역의 발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려졌다.

첫째, 층위학적으로 지층 4에서부터 지층 8까지 발견되었다(그림 5 참조).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층위는 지층 4(주전 9세기)로서 진흙 성



그림 4. 제7차 텔 라기스 발굴 지역 (2022-2023년, 위쪽-동쪽 방향, 항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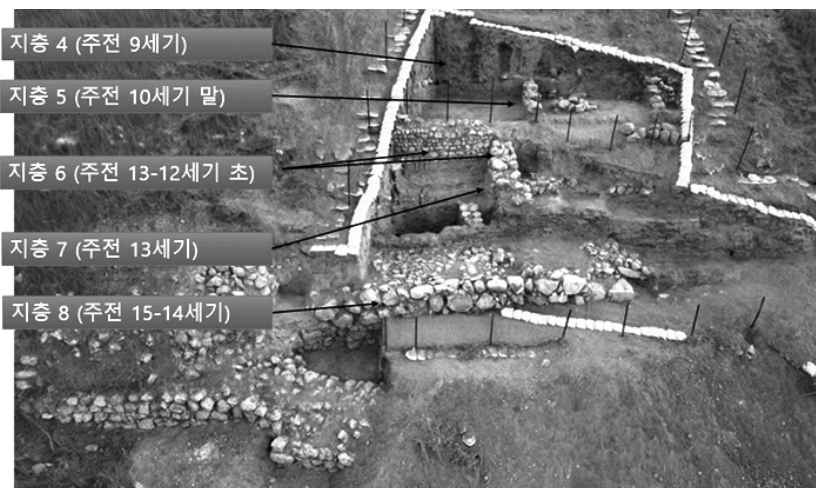


그림 5. DD 지역에서 드러난 층위학적 모습 (북쪽 방향)

벽과 그 아래의 석조 기단이 발견되었다. 석조 기단은 돌들이 대부분의 장소에서 한 단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도 여기 저기에 돌들이 깔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아래에서 지층 5(주전 10세기 말~9세기 초)의 개인 가옥 건물을 이루는 벽들이 발견되었다. 두 개의 벽이 나란히 남북 방향으로 건축되었으며 또 다른 벽이 동쪽의 것에 직각으로 건설되었다. 나란히 건축된 두 벽 사이에서 타원형의 설비가 발견되어 이곳이 거주 가옥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달리 말하면, 이 지역의 발굴에서 다섯 번째 지층에서 성벽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아래 지층 6(주전 13~12세기 초)에서는 가나안 시대 건축물이 발견되었다. 동서쪽으로 건축된 벽은 지층 6A의 것이며 이 벽과 직각으로 건축된 남북 방향의 벽은 지층 6B의 것이다. 이 벽 동쪽에서 돌로 된 바닥이 드러났다. 이 벽 아래에서 다시 동서 방향으로 건축된 한 줄의 벽이 발견되었는데 이 벽은 지층 7(주전 13세기)의 것이다. 그 아래에서 지층 8의 건물이 발견되었다. 석조 기단위에 진흙벽으로 건축된 거대한

건물로서 너비 3미터 길이 20미터 크기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과 연하여 건설된 벽 두 개가 건물 안에서 발견되었다. 두 단계를 이루는 것으로(지층 8A와 8B, 주전 15~14세기), 모두 너비 3미터 너비의 벽에 직각으로 접하여 벽들이 건축되었다. 2022년 발굴에서 이 건물 가장 아래 바닥(지층 8B)까지 발굴되었는데 심한 화재로 파괴되었음이 드러났다.

둘째, 가나안 시기의 모든 지층에서 바닥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지층 6A의 생활 바닥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으며 지층 8A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바닥이 발견된 곳에서 가나안 시기의 특징적인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지층 7의 바닥에서 가나안의 전형적인 토기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온전히 복원된 것으로 가나안 시대의 특징적인 채색된 크레이터이다(그림 6).

이 지층의 바닥 체질을 통하여 발견된 은덩이 또한 주목할 만한 발견물이다(그림 7). 두 가지 사실에서 그러한데 하나는 그것의 중량과 연관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척, 분해 후 드러난 모습이다.

이 은덩이의 중량은 113g으로 고대의 1 세겔이 11.34 g이라고 할 때 이 은덩이의 무게는 10 세겔에 해당한다. 이는 지층 7의 가나안인들의 매매 단위로 세겔이 사용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⁴



그림 6. DD 지역 지층 7에서 발견된 채색된 가나안 토기



그림 7. DD 지역 지층 7에서 발견된 은덩이

4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1세겔이 8.5g.인 것을 감안할 때, 13세겔이 넘는 단위이다



그림 8. DD 지역 지층 7에서 발견된 은덩이 세척, 분해 과정 후의 모습

이 은덩이의 세척 후 분해하여 드러난 모습은 처음 예상한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그림 8). 여러 종류의 귀걸이와 옷핀 등이 드러났으며 몇 개의 조각으로 난 은조각들이 뭉쳐져 덩이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귀걸이 형태를 보이는 것들 대부분은 부분적으로 깨져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따라서 아마도 귀금속을 사용하다가 손상이 간 것들을 모두 모아 덩이로 만들어 아마도 매매하는 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지층 8의 건물은 기념비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라기스뿐만 아니라 쉬펠라 전체 지역에서 발견된 주전 15-14세기의 건물들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건물이 길이만 하더라도 동서로 20미터이며, 폭은 앞서 언급한 대로 3미터이다. 아래쪽에

(J.W. Betlyon, "Coinage", *ABD* Vol.1., 1076-1079 참조. 시대와 지역에 따른 은에 대한 연구는 A. Golani, *Jewelry from the Iron Age II Levant* (Academic Press Fribourg, Fribourg Switzerland/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2013), 16-18 참조.



그림 9. DD 지역 지층 8에서 발견된 거대한 건물 (북쪽 방향)

석조 기반이 있으며 위쪽에 진흙으로 건축되었다(그림 9). 이 건물은 앞으로 면밀한 분석 대상이며 전체적 구조와 안쪽의 발견물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현재 알려진 이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하술에서 발견된 너비 4미터의 가나안 신전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건물이 신전인지 아니면 궁전이나 요새인지 건물 안쪽에서 발견된 내용물을 바탕으로 그 용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Area EE

DD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EE 지역은 DD 지역과 마찬가지로 텔 라기스 남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DD 지역에서 드러난 층위학적 순서와 위치 정보를 통하여 지층 5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가늠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EE 지역 지표면에 지층 5의 높이에서 성벽으로 추정되는 벽이 드러났다(그림 10). 이 벽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정방형 구역이 발굴되어 이 벽



그림 10. EE 지역 발굴 전 지표면에서 드러난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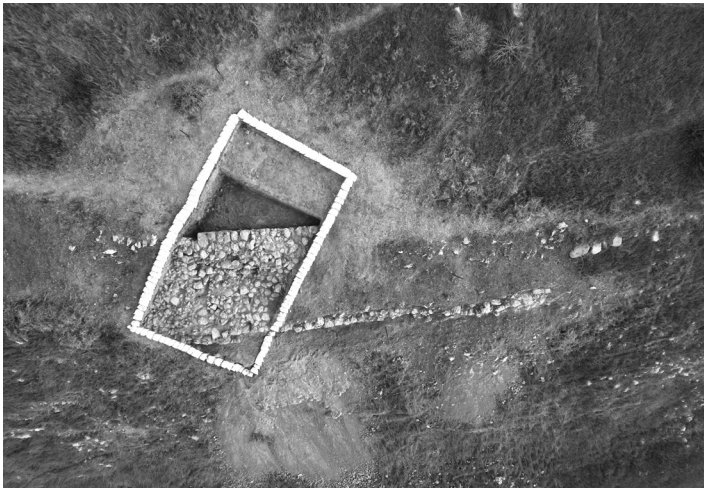


그림 11. EE 지역에서 발견된 성벽 (항공 사진)

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벽은 너비 4.5 미터의 성벽으로 바깥선 청결 작업한 결과 약 20미터에 이른다(그림 11).

www.kci.go.kr

이 성벽은 남쪽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성벽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지층 5의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층위학적 위치와 높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D 지역의 층위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지층 5의 위치가 텔 경사면 중간 벽에서 약 5미터 위쪽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롭게 발견된 성벽은 EE 지역에도 위치한 경사면 중간 벽 약 5미터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둘째, 너비: 이 성벽의 너비는 약 4.5미터이다. 제3차 텔 라기스 발굴의 S 지역과 제4차 발굴의 CC 지역에서 알려진 지층 4-3의 성벽의 너비는 6미터이다. 한편 CC 지역에서 알려진 지층 5의 성벽은 너비 3.5미터이다. EE 지역에서 발견된 성벽의 두께는 지층 4-3의 성벽보다 1.5미터 더 좁고 지층 5의 성벽보다 1미터 더 넓다.

셋째, 건축 특징: 이 성벽은 돌로 축성된 성벽이며 돌 위에 진흙 성벽이 건축된 흔적이 없다. 달리 말하면 이 벽은 오직 돌로만 건축된 견고한 성벽(solid city wall)이다.

넷째, 성벽 안쪽 선: 이 성벽은 분명한 안쪽 선을 지니고 있으며 서쪽에서는 각진 부분을 볼 수 있다. 동쪽 부분에서는 돌이 두 단에 걸쳐 축성된 것이 발견되었고 서쪽에서는 최대 네 단이 드러났다(그림 12). DD 지역에서 드러난 지층 4의 석조 기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다섯째, 토기: 아직까지 온전한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지만⁵, 성벽 안쪽에서 발견된 토기들은 아주 소수의 이른 시기의 토기(초기 청동기 시

5 성벽의 연대는 그 성벽 안쪽 바닥에서 출토된 토기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M. Kochavi/P. Beck/R. Gophna, "Aphék-Antipatris, Tel Poleg, Tel Zeror and Tel Burga: Four Fortified Sites of the Middle Bronze Age IIA in the Sharon Plain", *Zeitschrift des Deutschen Palästina-Vereins* 95 (1979), 125)은 타당하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네 가지 사항들 외에 이 성벽과 연관된 생활 바닥이 확인되고 바닥에서 출토된 토기들에 의하여 최종 연대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2. 성벽 안쪽 면의 모습과 성벽 안쪽에서 발견된 토기들 (남쪽 방향)

대와 후기 청동기 시대)가 수집되었지만, 발견된 대부분의 토기는 후기 철기 시대 초기(Iron Age IIA)의 것이다. 이 시기 토기의 특징적인 장식인 적색 덧입힘과 불규칙적인 손마름질이 많이 발견되었다(그림 13).

이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성벽은 주전 10세기 말~9세기 초의 것으로 편년되는 지층 5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3. 성벽 안쪽에서 발견된 토기들

3. 새로운 논쟁점

2022-2023년에 시행된 제7차 텔 라기스 발굴은 새로운 발견물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 다른 논쟁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도시의 크기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문서와 고고학 자료 간의 관계이다.

2015년 라기스 북쪽 경사면에서 발견된 지층 5의 성벽은 라기스가 주전 10세기 말 르호보암 시대에 요새화를 갖춘 도시였음을 알려주었다.⁶ 이후 제기된 것은 지층 5의 요새화된 성읍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이다. 라기스의 주요 수원지인 우물을 중심으로 궁전을 포함하는 도시였는가? 아니면 지층 5의 요새화된 성읍은 라기스 전체를 두르는 7.5 헥트아르의 크기였는가? 가르핀켈 교수는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라기스 지층 5의 요새화된 성읍은 언덕 일부만을 포함하는 도시였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라기스 서쪽 경사면인 S 지역(제3차) 발굴 시 지층 5에서 성벽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북쪽 갈릴리 지역의 하술의 철기 시대 성읍이 지층 10-9(주전 10세기)에서 상부 도시 일부가 요새화되었다가 지층 8(주전 9세기)에 와서 상부 도시 전체를 두르는 요새화된 성읍으로 발전하였음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발굴된 다른 도시들(미스바, 벤세메스 등)에서도 도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라기스 서쪽 S 지역의 가옥 등은 요새화된 성읍 바깥에 거주한 이들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층 5부터 라

6 요새화된 성읍 자체를 부인하며 달리 해석하려는 주장에 대해서 본 연구는 배제한다. 제4차 발굴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H.-G. Kang/Y. Garfinkel, "Fortifications of Areas CC and BC at Tel Lachish", *Jerusalem Journal of Archaeology* 1 (2021), 352-374; H.-G. Kang/ S.-Y. Chang/Y. Garfinkel, *윗글*(2023), 135-145), 제7차 발굴을 통해서 성벽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기스 전체를 두르는 요새화된 성읍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⁷ 이에 대한 근거는 첫째, S 지역에서 발견된 지층 5의 가옥은 서쪽면으로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성벽이 서쪽 경사면에 있었다면 가옥이 끝나는 지점에 접하여 건설되었기에 성벽이 잘 보존되지 않았다고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S 지역에서 성벽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성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4차 발굴의 CC 지역 서쪽과 같이 성벽 돌이 침식되었거나 지층 5의 성벽에 있던 돌들을 지층 4의 건설자들이 성문 지역을 건설할 때 사용하였을 것이다. 둘째, 요새화된 성벽이 있는데 장막이 아닌 개인 가옥을 성벽 바깥에 건축하여 거주한다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지층 5의 성벽이 발견된 이후 텔 라기스 언덕 동쪽, 서쪽, 남쪽 경사면을 지표조사한 결과 지층 5의 높이에 성벽으로 여겨질 만한 돌들이 어떤 경우는 벽처럼 인공적으로 세워진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발굴자 간 고고학적 이견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예이기도 한데, EE 지역에서 발견된 지층 5의 성벽은 주전 10세기 말 이미 라기스는 전체를 성벽으로 두른 명실상 남유다 왕국의 제2의 도시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EE 지역의 성벽 발견으로 인하여 DD 지역에서 개인 가옥이 발견되고 벽들이 남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서쪽 지역인 S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지층 4의 성벽과 경사면 중앙의 성벽 사이에 있는 Sq. C13, Sq. C14에서 발견된 돌들⁸은 아마도 지층 5의 성벽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하나는 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 간의 관계이다. 이스라엘

7 H.-G. Kang/Y. Garfinkel, *윗글*(2021), 357을 보라.

8 G. Barkay/D. Ussishkin, "Ch. 9. Area S: The Iron Age Strata", D. Ussishkin(e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2004), 432-436, Figs. 9.19-9.20.

고고학적 결과물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성서와 고고학 자료 간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 자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일부에서 행해졌다. 최근 역사학자인 코건은 사마리아 멸망과 디아스포라에 대한 내용을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고학 자료와 성서의 기술을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역사 자료를 모아 역사를 재구성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역사학자들의 추정과 가설이 이루어지며 이는 비판과 재수정을 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⁹

고고학 자료와 성서 기술을 제외한 역사 자료에 라기스는 오직 세 시기(주전 15세기, 주전 14세기, 주전 8세기)에 나타난다. 주전 8세기 앗시리아 역사 자료에 언급된 라기스는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비교적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Ussishkin 1982), 이전의 두 자료에 대해서는 불일치가 나타난다.

주전 15세기 경(아멘호텝 2세) 이집트의 한 파피루스에 이집트의 사절단이 라기스를 포함한 가나안 도시로 보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¹⁰. 이는 이 당시 라기스가 가나안의 중심 도시였음을 증거하는데,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는 빈약하다. 이 시기 알려진 중심 건물로서는 가장 초기의 해자 신전과 S 지역에서 발견된 길이 17미터 건물이다.¹¹ 석조기단위에 진흙벽으로 세워진 이 건물은 길이가 17미터에 이르는 큰 건물이지만 폭이 75센티미터의 비교적 빈약한 것이며 위치와 규모로 보

9 M. Cogan, "Binding up Samaria's Wounds: A Critical Assessment of New Assyriological Studies on the Fall of Samaria and Its Aftermath", *Israel Exploration Journal* 72 (2022), 169-188.

10 므깃도, 하술 등 그 당시 다른 가나안 도시-국가들과 함께 라기스가 언급되었으나 우시쉬킨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나안 남쪽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도시는 아쉬켈론과 라기스 뿐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부분이다(D. Ussishkin, *Biblical Lachish: A Tale of Construction, Destruction, Excavation and Restoratio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Biblical Archaeology Society, 2014), 122-124)

11 G. Barkay/D. Ussishkin, *윗글*(2004), 324-337, Fig. 8.13

있을 때 역사 자료에 언급된 라기스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미미하다. P 지역에서는 몇 개의 구덩이와 토기만 알려졌을 뿐 이렇다 할 만한 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¹² 한편, 주전 14세기 다섯 개의 아마르나 편지에 도시와 그곳을 다스린 세 명의 통치자(짐레다, 쉬프티-발루, 야브니-일루)가 언급될 정도로 라기스는 그 당시 중요한 도시-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의 라기스에 대하여 알려진 고고학적 증거 또한 이 서신에 언급된 라기스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미미하다. 초기 해자 신전 위에 세워진 두 번째 해자 신전과 몇 개의 비교적 풍부한 유물을 포함하는 무덤이 대표적이며 다른 유적들은 대부분 파편적이며, 이 사실들에 덧붙여 우시쉬킨은 라기스가 요새화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이집트 역사 자료에 언급된 라기스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라기스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¹³

제7차 텔 라기스 발굴 DD 지역에서 발견된 길이 20미터(현재까지 발견된 길이!)와 너비 3미터의 건물은 층위학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주전 15-14세기의 건물로 여겨진다. 이 건물은 이집트 역사 자료에 언급된 라기스의 위상을 보여주는 첫 번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 발견된 것을 바탕으로 논의한 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 간의 해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역사 재구성을 시도하거나 고고학적 발견물을 바탕으로 다른 자료(여기서는 역사 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점을 지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발견되지 않음은 역사의 부재와 동시에 아직 발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발굴을 통하여 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자료- 역사 자료와 성

12 D. Ussishkin, *윳글*(2004), 188, Fig. 5.1.

13 윳글, 59-60.

서 자료-를 가치 평가하는 것은 제한적인 일임을 보여준다.

4. 제7차 텔 라기스 발굴 결과와 성서고고학적 의미

라기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발굴단의 제6차 발굴을 포함하여 고고학적 연구의 중심 대상이 되어왔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적지 않은 사실들이 알려졌다. 고고학적 발견물들은 성서 자료와 역사 자료와 더불어 라기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제7차 텔 라기스 발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새롭게 알려준다.

첫째, 지층 8의 거대한 건물: 가나안 시대의 라기스는 쉬펠라 지역의 주요 도시-국가였음을 알려준다. 이 건물은 주전 15세기 파피루스와 주전 14세기 아마르나 편지를 통해서 알려진 도시-국가 라기스의 위상을 알려주는 발견물이라 할 수 있다. 가나안 시기의 라기스에 대하여 여호수아서는 도시-국가 명단에 포함하며(수 12:11), 다른 도시-국가들과 연대하여 외부 세력의 침투와 배신자 처단 행위에 가담하는 세력으로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수 10장). 이후 라기스는 구약성서 어디에도 가나안의 도시로 소개되거나, 도시-국가로서 소개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구약성서 내 여호수아서에만 유일하게 언급된 가나안 도시-국가로서의 라기스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만 나타나는 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된다. 적어도 라기스와 관련하여 여호수아서가 포함된 신명기 역사서는 고대의 역사를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14 A. Mazar, "Remarks on Biblical Traditions and Archaeological Evidence Concerning Early Israel", W.G. Dever/S. Gitin (eds.), *Symbiosis, Symbolism and the Power of the Past: Canaan, Ancient Israel and their Neighbors from the Late Bronze Age through Roman Palestine* (Winona

둘째, 지층 7의 은덩이: 지층 7의 바닥에서 가나안 채색 토기와 함께 발견된 은덩이는 가나안 사회의 은 세켈 단위 사용의 증거이다. 구약성서에서 매매/상환 또는 무게/가치 단위로 은의 세켈이 언급된 구약성경의 80구절 가운데 53구절이 율법서에 편중되어 나타난다.¹⁵ 달리 말하면 후기 청동기 시대까지 배경으로 하는 구약성서 내용에서 은 세켈 단위 사용의 약 3분의 2(66.3%)가 언급되었다. 철기 시대에는 돌로 된 무게추가 발견되어 무게 단위를 나타내는데,¹⁶ 이번 발굴의 DD 지역에서 발견된 후기 청동기 시대의 은덩이는 그 당시 은이 귀금속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의 단위로 사용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¹⁷

셋째, 지층 5의 가옥 건설: 지층 5의 개인 가옥이 성벽과 병합되어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도시 건설은 전체를 통제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요새화와 계획화된 도시 건설은 왕국의 형성단계와 연관이 있으며 남유다 왕국의 존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1990년대 초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유다 왕국은 주전 10세기에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된 이후 남유다 왕국의 건설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¹⁸ 구약성서의 묘사와는 달리, 주전 10세기의 통일

Lake: Eisenbrauns, 2003), 85-98; 강후구, *윳글*(2014), 220-229.

- 15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열왕기하까지 15구절, 역대기 역사서- 역대상~느헤미야까지 8구절, 후기예언서- 이사야~말라기까지 4구절 언급되며 룻기, 에스더, 시가서(욘기~아가, 예레미야 애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 16 R. Kletter, *Economic Keystones: The Weight System of the Kingdom of Jud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17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 동일한 무게 단위의 매매용 은덩이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언급된 성경 본문에 대한 역사비평적 분석이 필요하다.
- 18 D.W. Jamieson-Drake, *Scribes and Schools in Monarchic Judah*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91).

왕국시대의 국가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국가 성립은 구약성서의 기술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주전 8세기에 와서야 남유다 왕국이 성립되었다고 주장되었다.¹⁹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고고학적 결과물을 해석하여 다시 구약성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다시 사용하는 이른바 순환논리를 비판하거나, 구약성서 구절을 바탕으로 한 고고학 지층의 연대 설정과 고고학적 결과물들을 어느 민족에 속한 것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민족지학적 논의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국가 성립과 관련된 고고학적 발견물을 달리 해석하였고 또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라기스의 경우 이러한 해석학적 논의(연대설정과 민족지학적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이었는데 주전 10세기 말경으로 편년되는 지층 5에서 성벽과 함께 개인 가옥이 계획적으로 건설된

19 E.A. Knauf, "From History to Interpretation", D.V. Edelman(ed.), *The Fabric of History: Text, Artifact and Israel's Past*, JSOT Supplement Series 127 (Sheffield, UK: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26-64; D. Master, "State Formation Theory and the Kingdom of Ancient Israel", *JNES* 60/2 (2001), 117-131; A. Faust, "Abandonment, Urbanization, Resettlement and the Formation of the Israelite State", *NEA* 66/4 (2003), 147-161; idem., "Rural Settlements, State Formation, and "Bible and Archaeology"*NEA* 70/1 (2007), 4-9; I. Finkelstein, "State Formation in Israel and Judah: A Contrast in Context, A Contrast in Trajectory", *NEA* 62/1 (1999), 35-52; idem., "[De]formation of the Israelite State: A Rejoinder in Methodology", *NEA* 68/4 (2005), 202-208; idem., "A Great United Monarchy?: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R.G. Kratz/H. Spiekermann(eds.), *One God-One Cult-One Nation: Archaeological and Biblical Perspectives* (BZAW 405, Berlin & New York, 2010), 3-28; N. Franklin, *State Formation i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Some Tangible Symbols of Statehood*. Unpublished Ph.D. diss.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2005); E. Pfoh, "Dealing with Tribes and States in Ancient Palestine: A Critique on the Use of State Formation Theories in the Archaeology of Israel", *SJOT* 22.1 (2008), 86-113; M. Steiner, "Propaganda in Jerusalem: State Formation in Iron Age Judah", L.L. Grabbe(ed.), *Israel in Transition* (New York & London: t & t clark), 193-202; A. Fantalkin, "The Appearance of Rock-Cut Bench Tombs in Iron Age Judah as a Reflection of State Formation", A. Fantalkin/A. Yasur-Landau(eds.), *Bene Israel: Studies in the Archaeology of Israel and the Levant during the Bronze and Iron Ages in Honour of Israel Finkelstein*. Culture and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31 (Leiden: Brill, 2008), 17-44.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개인 가옥이 성벽에 접하여 건설된 것은 키르벳 케이야파, 게셀, 벤 세메스, 미스바, 텔 베이트 미르심, 브엘세바 등 남유다 왕국과 관련된 곳에서 발견되는 도시 건설 방식이다.²⁰ 따라서 텔 라기스 지층 5에서 발견된 도시의 모습은 주전 10세기 초부터 시작된 남유다 지역의 요새화와 계획된 도시의 등장²¹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30여 년 전 주장되었던 바와 달리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국가 성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지층 5의 성벽: 절대연대 결과와 상대연대 분석에 의하여 지층 5는 르호보암 시대로 연대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시기에 요새화된 도시가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쪽과 남쪽 경사면에 지층 5의 성벽이 발견된 것은 이 시기의 라기스 성읍 크기가 7.5 헥타아르(75,000 m²)이며, 유다 왕국 시기의 라기스는 르호보암 시대부터 예루살렘 다음의 중요 성읍이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주전 9세기 때의 6미터 너비의 진흙 성벽이 세워진 것은 르호보암이 세운 기반 위에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요새화의 역사는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지층 5의 성벽은 르호보암 시대의 건설 사업의 일환(대하 11: 5-12)으로 왕국 분열 후 남유다 왕국의 방어 강화 정책으로 이해된다.²² 쉬펠라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라기스의 성읍 건설은 아얄론부터 라기스까지 이어지는 서쪽 국경 방어 체계와 함께 지정학적 이유, 아마도 라기스 주변의 농지와 원예사업 활성을 위한 경제적 이유

20 Z. Herzog, *Archaeology of the City : Urban Planning in Ancient Israel and Its Social Implications* (Tel Aviv : Emery and Claire Yass Archaeology Press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1997).

21 Y. Garfinkel/I. Kreimermann/P. Zilberg, *Debating Khirbet Qeiyafa: A Fortified City in Judah from the Time of King Davi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5), 70-72.

22 강후구, “제4차 텔 라기스 발굴과 대하 11장 5-12절”, 『장신논단』 49/2 (2015), 13-33.

로 라기스를 거점 도시로 육성케 함이었다고 해석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의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울 시대에는 쉬펠라 지역에 거점 도시를 육성하지 않았다. 다윗 시대에는 왕국을 위협하는 블레셋 세력 즉, 가드 세력의 산악지역 진입을 막기 위한 엘라 골짜기에 키르벳 케이야파의 요새화된 성읍 건설, 이후 주전 10세기 중반 솔로몬 시대에는 게셀 지층 8의 성읍과 벤세메스 지층 3의 성읍 건설, 르호보암 시대에는 왕국이 분열된 이후 라기스 지층 5의 성읍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쉬펠라 지역의 거점 도시의 이동은 지정학적 변화와 시대에 따른 전략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이해된다.

참고문헌

-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삭 침공까지』(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2014).
-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 2013-2014년 텔 라기스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장신논단』 23 (2015), 571-599.
- 강후구, “제4차 텔 라기스 발굴과 대하 11장 5-12절”, 『장신논단』 49/2 (2017), 13-33.
- 강후구, “제4차 텔 라기스 발굴 (2013-2017)의 성서고고학적 기여점과 앞으로의 과제”, 『서울장신논단』 26 (2018), 69-85.
- Betlyon, J.W. “Coinag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day, 1992), 1076-1089.
- Clamer, C. “Ch. 20. Additional Late Bronze Age Pottery Assemblages, Section A: The Pottery from Levels P-2 and P-1 in Area P”, D. Ussishkin (e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2004), 1155-1234.
- Cogan, M. “Binding up Samaria’s Wounds: A Critical Assessment of New Assyriological Studies on the Fall of Samaria and Its Aftermath”, *Israel Exploration Journal* 72 (2022), 169-188.

- Fantalkin, A. "The Appearance of Rock-Cut Bench Tombs in Iron Age Judah as a Reflection of State Formation", A. Fantalkin/A. Yasur-Landau(eds.), *Bene Israel: Studies in the Archaeology of Israel and the Levant during the Bronze and Iron Ages in Honour of Israel Finkelstein*, Culture and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31, (Leiden: Brill, 2008), 17-44.
- Faust, A. "Abandonment, Urbanization, Resettlement and the Formation of the Israelite State", *Near Eastern Archaeology* 66/4 (2003), 147-161.
- Faust, A. "Rural Settlements, State Formation, and "Bible and Archaeology", *Near Eastern Archaeology* 70/1 (2007), 4-9.
- Finkelstein, I. "State Formation in Israel and Judah: A Contrast in Context, A Contrast in Trajectory", *Near Eastern Archaeology* 62/1(1999), 35-52.
- Finkelstein, I. "[De]formation of the Israelite State: A Rejoinder in Methodology", *Near Eastern Archaeology* 68/4(2005), 202-208.
- Finkelstein, I. "A Great United Monarchy?: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R.G. Kratz/H. Spiekermann(eds.), *One God-One Cult-One Nation: Archaeological and Biblical Perspectives*(BZAW 405. Berlin & New York, 2010), 3-28;
- Finkelstein, I. "Iron Age Chronology and Biblical History Rejoinders: The Late Bronze/Iron Age Transition, Tel 'Eton and Lachish",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52/2 (2020), 85-89.
- Franklin, N. *State Formation i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Some Tangible Symbols of Statehood*. Unpublished Ph.D. diss. (Tel Aviv University, 2005).
- Ganor, S./Kreimermann, I. "An Eighth-Century B.C.E. Gate Shrine at Tel Lachish, Israel", *Bulletin of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82 (2019), 211-236.
- Garfinkel, Y./Kreimermann, I./Zilberg, P. *Debating Khirbet Qeiyafa: A Fortified City in Judah from the Time of King David*(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5).
- Garfinkel, Y. et al. "The Canaanite and Judean Cities of Lachish, Israel: Preliminary Report of the Fourth Expedition, 2013-2017",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125 (2021), 419-459.
- Golani, A. *Jewelry from the Iron Age II Levant* (Academic Press Fribourg, Fribourg Switzerland/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2013).
- Herzog, Z. *Archaeology of the City: Urban Planning in Ancient Israel and Its Social Implications* (Tel Aviv: Emery and Claire Yass Archaeology Press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1997).

- Höflmayer F. et al. "Early Alphabetic Writing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missing link' from Tel Lachish", *Antiquity* 95 (2021), 709-719.
- Jamieson-Drake, D.W. *Scribes and Schools in Monarchic Judah*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91).
- Kang, H.-G./Chang, S.-Y./Garfinkel, Y., "The Level V City Wall of Tel Lachish",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55/2 (2023), 135-145.
- Kang, H.-G./Garfinkel, Y., "Fortifications of Areas CC and BC at Tel Lachish", *Jerusalem Journal of Archaeology* 1 (2021), 352-374.
- Kletter, R. *Economic Keystones: The Weight System of the Kingdom of Jud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Knauf, E.A. "From History to Interpretation", D.V. Edelman (ed.), *The Fabric of History: Text, Artifact and Israel's Past*. JSOT Supplement Series 127 (Sheffield, UK: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26-64.
- Kochavi, M./Beck, P./Gophna, R. "Aphek-Antipatris, Tel Poleg, Tel Zeror and Tel Burga: Four Fortified Sites of the Middle Bronze Age IIA in the Sharon Plain", *Zeitschrift des Deutschen Palästina-Vereins* 95/2 (1979), 121-165.
- Master, D.M. "State Formation Theory and the Kingdom of Ancient Israel",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60/2 (2001), 117-131.
- Mazar, A. "Remarks on Biblical Traditions and Archaeological Evidence Concerning Early Israel", W.G. Dever/S. Gitin (eds.), *Symbiosis, Symbolism and the Power of the Past: Canaan, Ancient Israel and their Neighbors from the Late Bronze Age through Roman Palestine* (Winona Lake, 2003), 85-98.
- Moran, W.L.,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E. Pfoh, "Dealing with Tribes and States in Ancient Palestine: A Critique on the Use of State Formation Theories in the Archaeology of Israel",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2.1 (2008), 86-113.
- Rainey, A.F. *The El-Amarna correspondence: A new edition of the cuneiform letters from the site of El-Amarna based on collection of all extant tables* (Leiden: Brill, 2015).
- M. Steiner, "Propaganda in Jerusalem: State Formation in Iron Age Judah", L.L. Grabbe (ed.), *Israel in Transition* (New York & London: t & t clark), 193-202.
- Streit, K. et al. "Between Destruction and Diplomacy in Canaan, The Austrian-Israeli

- Expedition to Tel Lachish”, *Near Eastern Archaeology* 81/4 (2018), 259–268.
- Tufnell, O., et al. *Lachish IV: The Bronze 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Ussishkin, D. (e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2004).
- Ussishkin, D. “Ch. 5. Area P: The Late Bronze Age Strata”, D. Ussishkin (e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2004), 188–204.
- Ussishkin, D. *Biblical Lachish: A Tale of Construction, Destruction, Excavation and Restoratio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Biblical Archaeology Society, 2014).
- Ussishkin, D. “Lachish and its Fortifications: A Response to Yosef Garfinkel’s Proposals”, *New Studies in the Archaeology of Jerusalem and Its Region* 13 (2019), 301–311 (Hebrew).
- Ussishkin, D. “The City Walls of Lachish: Response to Yosef Garfinkel, Michael Hasel, Martin Klingbeil and Their Colleague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55.1(2023), 91–110.
- Webster, L. et al. “New Radiocarbon-Based Assessment Supports the Prominence of Tel Lachish During Late Bronze Age IB-IIA”, *Radiocarbon* 61/6 (2019), 1711–1727.
- Yannai, E. “Ch. 19. The Late Bronze Age Pottery from Area S”, D. Ussishkin (e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2004), 1032–1146.

검색어

라기스, 제7차 텔 라기스 발굴, 르호보암, 가나안 시대, 문서와 고고학

[ABSTRACT]

The Excavation at Tel Lachish in the Seasons of 2022-2023 and Their Biblical and Archaeological Meaning

Hoo-Goo Kang
Seoul Jangsin University

Located at the southern Shephelah, about 40 km southwest of Jerusalem, Tel Lachish (Tell ed-Duweir)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city in the Kingdom of Judah only after Jerusalem. It is mentioned 24 times in the Old Testament in which it is describ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ity-states in the Canaanite period and the last city to resist the military campaigns of Assyria and Babylonia in the Shephelah.

It has been excavated six times until now and archaeological excavations have revealed the real feature of the city from the Canaanite period (Middle Bronze Age) to the Hellenistic period. From the year 2022, a new expedition to Tel Lachish (the Seventh Expedition to Tel Lachish) started on behalf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and the Institute of Biblical Archaeology, Seoul Jangsin University, directed by Prof. Y. Garfinkel and the author. This paper is aimed at three points:

1) it reports the main results from the excavations in the seasons of 2022 and 2023; 2) it inspects the possible and new contributions to the current archa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mound from the previous expeditions; and 3) it examines, based on the new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aeological findings and the Bible.

www.kci.go.kr

key words

Lachish, the Seventh Expedition to Tel Lachish, Rehoboam, Canaanite period,
Text and Archaeology

투고일: 2023년 12월 19일

심사일: 2024년 01월 1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2월 03일

www.kci.go.kr